

한인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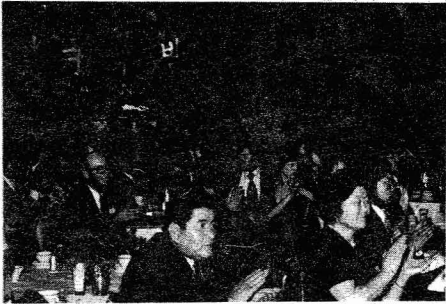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5월 24일

특집호

사월의 밤 장식한 '한국의 밤' 성공리에 폐막

지난 4월 24일 저녁 7시 올림피아 호텔에서 대양 하연 '한국의 밤'이 열렸다. 한 신회 주최, 타코마 부인회 후원으로 열렸던 이



행사는 할병준 주미한국대사 내외를 비롯, Governor Evans, 시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Sam Smith (Seattle City Council Chairman) 씨, 워싱턴주의 사회, 정치, 종교, 사업등 각계각층의 대표들, 또 한국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장 대표들 그리고 대다수의 교포들이 참석했었다.

'한국의 밤'이라 쓴 화려한 장막이 걸린 가운데 한국정취가 담긴 문동품, 조각품, 각종저서, 포스터, 팜프렛트등을 전시해서 외국인에게는 한국을 소개하는 기회, 한국인들에게는 조국을 가까이 느껴볼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인회가 이러한 큰 행사를 마련한 동기는 7000명이라는 큰 숫자로 늘어난 교포사회를 우리 가물갈고 있는 이사회에 소개하고 우정을 교환하는 동시에 또 한인들을 위한 취직훈련, 취직알선 등이 도움이 된 사회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교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도 한국어의 인식까지 한국 국년의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 동기였다.

7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찬선을 나누는 칵테일 토크스트로 시작해서 7시 30분 부터는 저녁식사에 들어갔으며 식사가 끝난 후에는 신호별 한인회장의 안내말씀과 주최측을 비롯한 감사의 말씀, 퀸 소개가 있었고 이어 수차 한국을 다녀온 바 있는 Governor Evans의 한국어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관심, 또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격려의 연설이 있었다.

이어 시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Sam Smith (Seattle City Council Chairman)씨가 시장을 대신해서 4월 24일을 '한국의 날'로 선포하는 선언서를 낭독 하므로써 4월 24일은 매년 '한국의 날'로 정해졌다.

뒤이어 할병준 여사는 한국의 상황설명,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퀸들의 연설을 모두 끝내고 이르기까지 이사회로 한국 교유의 푸른그늘이 진행되었다. 한국인요, 한국 고전무용, 가야금, 피아노, 태권도시범 등이 그 주 순서였는데 특히 한국을 접해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미국인들은 한국의 독특한 고전 예술이 특이기에 새삼 놀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행사는 열시 반쯤 폐막되었는데 이 대대적인 행사가 대성공리에 끝날수 있었던것은 우리 7000 한인 교포의 성원의 덕이였음을 의심해 하지 않는다.



OFFICE OF THE MAYOR · CITY OF SEATTLE
WES UHLMAN, MAYOR

PROCLAMATION

WHEREAS, there are approximately 4,000 Koreans living within the Greater Seattle area; and
WHEREAS, trade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developed the third largest export resource for the Port of Seattle; and
WHEREAS, on April 24, 1975, the Honorable Pyong-choon Hahn,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will pay his first official visit to the City of Seattle; and
WHEREAS,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of Seattle has distinguished itself over many years as a dedicated, concerned group of citizens, proud of their heritage and traditions;
NOW, THEREFORE, I, WES UHLMAN, Mayor of the City of Seattle, do hereby proclaim April 24, 1975, as "KOREAN DAY" in Seattle, and urge all citizens to join me in extending a warm welcome to Ambassador Pyong-choon Hahn and in conveying our very best wishes to the members of Seattle's Korean-American community on this day.

Wes Uhlman
Wes Uhlman
Mayor

April 24, 1975



귀빈들 타코마 부인회 방문

東洋園

oriental garden

영업 시간 안내
 식당부 : 오전 11시 부터 저녁 9시
 카페일 : 오전 11시 - 새벽 2시
 음악과대성 : 저녁 9시 - 새벽 2시

* 요리 배달합니다 (정오 부터 저녁 7시)

12822 Pacific High Way S.W., Tacoma, Wash (Ponders Corner)

Phone (206) 588 - 5000

이민 교육의 문제점

오 계희

미국에 이민하여 자들의 자녀를 오랫동안 교육시켜본 우리나라 이외의 이민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미국의 학교는 이민자 자녀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한국에서 이민온 부모님들이 이것을 들으면 그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의심해 마지 않을 것이다. 좋은 환경과 교사를 구비한 미국의 학교 교육을 그렇게 멸함을 편견이라고 일축하여 버려도 될 상 싶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보면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럴사한 연유가 있지 않을 것인 양 방문뜰은 하게 되거니와 한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두고 이 말을 생각하여 보자. "미국의 우월한 교육이 과연 우리 한국인 자녀에게도 미국의 자녀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교육적 효과를 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여 보면 다른 이민자들이 내뱉은 위의 결론을 다소는 더 생각하여 보아야겠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부모가 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 우선 바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많이 배워 후에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즉 그 사회의 문화를 습득한다는 것인데 아동들이 문화를 습득(習得)하는 과정에 있어서 같은 문화내용이라도 아동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면이기도 하다. 인간이 교육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학습과정중에서 인간은 지각(知覺; Perceiving)이라는 실리상의 중요한 작용을 거치는데, 이것이 인성(Character and Personality)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개개인은 그 성장한 과정의

다음과 또 현재에 처해 있는 개개의 상황에 따라 개체간에 서로 상이(相異)한 지각을 한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과 실물도 사람에 따라 보여지고 느껴짐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각 개인이 상이(相異)하게 형성한 지각의 장(場)이란 것을 통해 사물을 보게 되는 때문이라고 하며 여러가지 중요한 학습상의 문제를 설명하여 주는 기본 이론이 되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두 청년이 밝은 달을 보는데 "7"은 자기의 연인을 그 달에서 연상하여 보고 달이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런데 "L"은 자기를 외면하고 떠난 여인이 그 달에서 연상되어 그 달을 보기 괴로웠다. "7"과 "L"이 보는 달은 같은 달이되 그 지각되는 달은 완전히 다르며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지각은 두 청년의 행동 등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예는 인간의 행동이 진행되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난다. 물론 우리들의 자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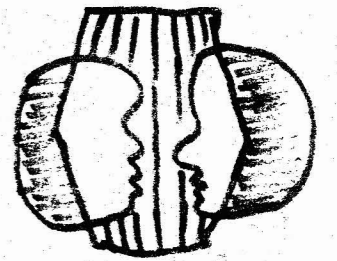
공부하고 있는 교실안에서도 일어나는 학교의 좋은 시설과 교재와 내용도 그것이 아동들에게 대공되어 배움이 시작될 때 그것에 대한 미국인 아동이 심리적으로 반응하는 지각의 현상과 이민자 아동들이 반응하는 지각의 현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사는 좋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교재를 준비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자녀에게는 예상치 않을 결과로 반응을 일으켜 본래의 의도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교육이 되는 예가 허다하게 일어난 수 있다고 한다. 쉬운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국민학교 학생에게 영양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고사는 아침식사로 먹는 빵과 밀크와 달걀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미국의 가정에서 온 자녀는 의외롭게 들었다. 우리의 자녀들도 흥미있게 듣고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반응과 그들의 지각의 경험은 뜻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뜻 있는 관찰의 결과에 의하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몇가지 일

특적으로 보이는 지각 반응이 있다. 즉 한국인 자녀인 경우, 우리사라핀 밀크와 빵 대신에 국과 밥을 아침에 먹는데 왜 그럴까? 밀크와 빵의 영양가는 좋는데 국과 밥은 이에만 못지 않은 것이 아닐까? 등등 식차른 지각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다. 이 같은 것은 간단한 예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아동은 미국의 학교에서 대될 수 학하는 도중에 상당한 의문과 그리고 문화간의 우열(優劣)을 비교하여 보는 표현 경험을 거치며 대개의 경우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경험을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처음에는 대단히 미소하여 그 결과가 당장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십여년의 해수를 보내는 동안 작으나마 조금씩 자기 문화를 열등하다고 보는 경험을 거치고 보면 대단히 특이한 학생으로 되어 나오게 된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경우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확고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결여되어 자기를 주장할 기력이 쇠약되고 또한 남과 어울려서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힘들게 되며 지도력과 솔선수범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기 보다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병당한 사람"으로 되어 나온다고 한다.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개 아동 자신이 자신의 가치와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전한 자존심을 육성하여 주는데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존심은 첫째 자신의 끊임 없는 노력은 물론이지만 둘째로 자기의 근원과 문화 전통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두 가지 일을 통해서야 비로써 형성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학교 교육이 우리 한국인의 아동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도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한 가지를 키워주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근원과 문

화적인 전통을 알아 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해와 존엄성의 인식을 키운다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과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데 미비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학교는 우리 이민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은 바로 이러한 교육상의 현상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자녀의 교육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렇게 볼 때에 미국에 이민한 부모로서의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익배당이 많은
프루덴셜보험!

* 자동차보험 * 건강 보험
 * 생명 보험 * 단체 보험
 * 저축 보험 * 화재 보험
 * 교육 보험 * 사업 보험
싼 가격으로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특별 대리인 안 병 용
PHILIP BYUNG-YONG AHN
 Special Agent

The Prudential Insurance Co. of America
 Prudential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
 201 Broad St., Seattle, Wash. 98121
 Office: (206) 447-2900 Res: (206) 244-8198

INSURANCE OF ALL KINDS FOR -
 CAR • LIFE • FIRE • HOME • BUSINESS
 HEALTH • BOAT • BOND • MOTORCYCLE

Prudential

한국 고전 무용
- 학교 순회 강습 -

Chinese Community Cultural Program 의 일환으로 Mrs. Kwan Soak Hinkle 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한국 고전 무용을 시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는데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많은 학교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Seattle - Vancouver
친선 경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 모집

오는 7월 12일로 확정된 Vancouver - Seattle 친선 경기에 출전할 남녀 배구 선수와 남자 릴레이 선수를 모집하고 있다. 흥미 있는 분은 주 상설 체육부장에 연락 바란다.
TEL: 938 - 1180



INTERNATIONAL GO-GO DISCOTHEQUE
SPECIALIZING IN ORIENTAL CUISINE
THE FINEST IN THE STATE
NIKKO GARDEN
THIS IS WHERE IT'S AT!
1421-6th Ave. Seattle, WA 98101

DIANE B. IKEDA Manager 624-3947

올림피아지의 "사우나" 랑 비방 기사에 대해
- 한인회 부인회등에서 항의 -

지난 6일, 7일, 8일에 걸쳐 올림피아지에서는 한국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사우나" 랑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은 창녀업이 공공연히 부끄럽지 않게 성행되는 나라이며 그런고로 미국 어온 한국여성들도 창녀라는 관념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가진 것 처럼, 또 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우나" 랑이 한국여성들이 창녀로 가짜는 요새인 것 처럼 보도 되었다.

이에 대해 올림피아지의 한인들은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전 한국인이 수치감 내지 모욕감을 느껴 과장된 기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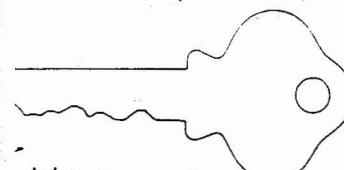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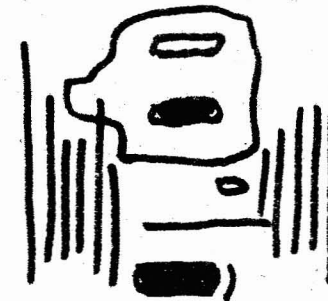
한인회는 물론 Commission on Asian American 회장인 Martin Matsuda, Lois Fleming, Minoru Masuda (Ja-Ame. Citizen League 대표), Nam Chu Pearls, 타코마 부인회장 Mrs. Nam Hee Nolze 등이 강력한 반박의 편지를 보내 아시아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의 관념을 시정해 주기를 요구 하고 있다.

E. O. C 소식

1) Mag Card Training
Memory typewriter 를 사용할 기술원을 양성할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된다. 모집인원은 6명인데 6월 10일까지 E.O.C 에 응모해 주기 바라고 있다. 프로그램은 6월 중순 시작되며 매주 월, 수 (저녁 6시~9시) 다섯 (Lesson) 에 걸쳐 끝낼 예정이라고 한다. 자격은 고교졸업자, 타이프실력 1분간 50자, 강습받을 정도의 영어 hearing 과 reading 이 가능한 자 이 한해서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E. O. C. 권영길씨나 김흥기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전화 번호는 725 - 8200 이다.

2) Seattle Community College
E. S. L program.

중국, 한국, 필리핀, 일본 등 이민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매학기 학생수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학생수의 사분의 일이 한국 이민자에게 해당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 이민 와서 언어에 고통을 받는 이민자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78불 50전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교육받을 수가 있다. 6월 10일경 3.4명이 졸업하기 되므로써 자리가 비게 되는데 우선권은 가족을 거느린 가장 (남녀 불문), 특정한 기술이 있는 자에게 주어 진다고 하며 일관 응모에서 선택되면 다시 Seattle Community College 에서 주는 시험에 붙어야만 E. S. L program 에 참가될 수가 있다. 자세한 것은 역시 E. O. C. 권영길씨 김흥길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한국분으로서 아파트 경영에 흥미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1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For Buying, Selling, Counselling of all types of Homes, Acreage and Commercial Properties in Seattle Area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6308 212th S.W.
Lynnwood, WA 98036

가옥, 토지 매매 알선, 상업안내, 기타 부동산 안내

제 1회 교회 대항 배구전 개최
-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가 영광의
우승 트로피 획득 -

4월 12일, 12시 Shoreline Community College 에서 제 1회 한인교회 대항 배구전이 열렸었다. 참가교회는 타코마 한인중앙교회, 시아를 복음교회, 시아를 형제교회, 세력 장로교회였으며 주심은 주상길 체육부장이 부심은 김종형씨 기록은 장진섭씨가 각각 맡아보았는데 전적은 다음과 같다.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 시아를 복음교회	
첫째 게임	15 : 1
둘째 게임	15 : 10
결과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우승
시아를 형제교회 : 세력 장로교회	
첫째 게임	15 : 4
둘째 게임	15 : 7
결과	시아를 형제교회 우승

- 결승전 -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 시아를 형제교회	
첫째 게임	15 : 13
둘째 게임	15 : 12
결과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우승

위의 전적대로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가 압도적으로 우승하므로써 영광의 트로피를 획득하게 되었는 데 트로피는 한인회 이사이신 이창희 선생님께서 수여 하셨다



Vancouver - Seattle 친선 체육 대회
- 장소, 날짜, 종목 결정 -

허하다 개최하는 Vancouver
- Seattle 체육대회를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19일 Vancouver
준비위원들이 Seattle을 방문
한바있다.

이날 한인회 임원들과 Vancouver 준비위원
들은 대회준비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동선원에서 자
리를 함께 했었다.

올해는 Vancouver 쪽이 주최측인 까닭에 회의
진행은 그쪽에서 알아냈는데, Vancouver와 Seattle
의 중간지점이 되는 곳이다 장소를 물색해 봤으나 딱
딱한 곳이 없어서 올해도 역시 미년의 피스
파크에서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날짜는 7월 22일 토요일이며 행사진행은 12시 부
편의 11시까지 도합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경기 종목은 예년과는 달리 참석자 모두가 함께
즐길수 있는 다채로운 종목을 마련했다.

줄다리기, 성인 릴레이, 배구시합, 사물찾기 등이
그무로 인데 줄다리기는 남녀를 섞고, 미성년 두팀으로
여자를 따로 한팀으로 해서 세 끼임을 벌일 예정이며
사물찾기는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게임인데 이두끼임을 남녀노소가 다함께 참
석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사
물 찾기 종목에서는 간단한 상품시상도 있을 것이라 한다.

남자는 남자배구 6인조팀, 여자배구 9인조팀
으로 출전하며 활야 선수들에게는 towel, 증정도 있을
것이라 한다.

올해는 피난트 증정도 있게 되는데 전체 종목
을 종합해서 우수한 측이 피난트를 획득하기 된다고
한다.

전상은 각자가 지향하는 불고기등의 음식을

행사장소에서 구실은 허바치등 준비도구를 지참해
수기를 요망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기타 독신자들을 위
해 각가정은 여분의 음식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독신
자들은 각가정의 온정을 선사하는데 부알없이 일해 주
기를 또한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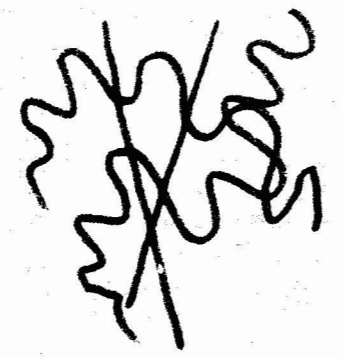
타코마 부인회 주최
- 아시아an 웨스리벌 -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필리핀인, 중국인, 일본인들의 아
시아인 부인들과 그가족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를 연라고 한다.

한인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한인회가 제공
하는 춘, 오락등의 다채로운 푸르고랄이 있을 것이며 음
식은 타코마 부인회에서 푸짐하게 장만한다고 하는데 알
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장소: National guard Armory
11th & Yakima
Tacoma, WA.

날짜: 6월 21일 토요일



장미동산

오정숙

내가 너에게 장미동산을 약속하지 않았다. (I
never promised you a rose gar-
den)은 1964년에 출판되어 한때 미국에서 가
장 인기가 있던 책으로 그 내용은 16세의 소녀가 3년
동안 정신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현실이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심리과정을 묘사한 책이다.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딸을 정신과 의사의 권유에 의
해 정신요양소이다 데려다 준 후에 부모가 느끼는 자
책감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괴로운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고 또한 딸이 갖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과 노
여움, 이에 따르는 괴로움, 그리고 씨대에 대한 증오심
이 잘 그려져 있다.

이책을 읽으면서 책 자체보다 그 제목이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생각해 보게 한다. 과연 장미동산이란
무엇 가르쳐 말하는 것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람마다 각자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내리는 정의가
다를 것이다.

내가 미국에 온지 9년이 되어간다. 정말 오랜 세월이
흘러간 것이다. 미국에 오기전에 나는 너 나를 겨로
의 장미동산을 3년간 물주고 가꾸고 꿈꾸었다. 씨가
미국에 알을 낳는순간 나의 꿈들인 장미동산은 가시렁
물로 바뀌었고 나는 나의 장미동산을 울면서 파
헤쳐 버렸다. 나는 나를 오게끔한 이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 왜? 무엇때문에 왔던가?
왜 와야할 숙명을 지녔던가? 밭을 새워가면서 애
개를 적었던 것이다.

이것이 온지 15일 만에 일을 시작했다. 이를 악물고 하
루도 결근하지 않고 일하러가 1년 반후에 임신 7개월
이 되어 사직했다. 사직하던날 같이 일하던 이
들이 몇분치의 봉투를 갖다 주었다. 열어보니 갖
남 애기가 입헌 속옷과 기저기와 옷가지였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장미동산을 하물지 않으면 안되
었다. 비록내가 한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고 자기
의 동정을 받지 않고도 살수있다고 생각하고 쓰러기
이다 옷가지를 갖다 버렸다.
이제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 셋을 기르면서
서러면으로 성장하고 또 이것포함도 알고 설득하기
되었다. 잊고져 앞집여자가 그집 7살난 사내아
이가 입다가 작아진, 무릎이 돌아나간 바지 몇
벌을 우리집 5살난 아이를 위해 갖다 주었을때 나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차 있었다. 바지에대고 대리미
로일면 쉽게 기워지는 험잡조각을 다들면이 가게
이갈때 사다가 바지를 손질해서 우리아이 놀때
집에서 입혀야겠다고 생각하고 잘 꺼쳐두었다.
시간은 흐르고 시간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인간을 변화
시킨다 설령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도
라도 후은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은 하루
하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이
다. 가장 가까운 친누사이 후은 부모형제 사이이
라도 장기간을 헤어졌다가 만날때 본인이 알지
못하는 변화를 상대방은 곧 발견하게되고 후가라
가는 피차에 그변화를 받아드리기 심히 괴로운 것
이다.

CLOSED MONDAY
SUN - THUR 10:30 A.M. - 10:30 P.M.
FRI & SAT 10:30 A.M. - 2:30 A.M.

WELCOME TO

타코마 명물
"냉면"
만두, 빈대떡,
통갈비, 후회하
맛좋은 "빈대떡"

WE ARE NOW SERVING DELICIOUS
AUTHENTIC CANTONESE, KOREAN
AND JAPANESE FOOD

竹

BAMBOO HUT
RESTAURANT

타코마 부인회
- 회원가족 피크닉 -

타코마 부인회에서는 회원가족의 야외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점심은 부인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회원은 물론 가족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는데 장소와 날짜는 아래와 같다.

장소: Spana Way park
날짜: 7월 12일 11시.



뉴-코리아식당
New Korea Restaurant

단체 손님 대소 연회 환영
CALL 523-7661

6815 ROOSEVELT WAY N.E., SEATTLE, WASH 98115



여러분의 내선 한인회비가
한인사회를 발전시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시던 재부 김영진
씨의 사임에 따라 Mrs. Smith,
Ladell 이 수고하시게 되었다.
앞으로 한인회비를 내신 분은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된다.
921 Lakeside Avenue S.
Seattle Washington 98144

오늘 한인사회에 이민 가족수가 늘고있다. 더가는 가족가운데 한사람이 먼저 이곳에 와서 살면서 어느정도 기반이 잡힌후에 남은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다. 초청자와 초청을 받은 가족은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갖은 애로와 난관을 경험한다. 초청자는 자기 자신이 이곳에 처음 와서 겪은 고통을 생각해서 가족을 위해 갖은 힘을 다해서 직장을 알아보고 살림을 주선한다. 그러는 가운데 서로 아끼다 보면 짜증도 나게되고 또한 힘에 부쳐다 보면 마음에 원하지 않는 일이 오고 가게되며 그때에 피차에 마 음이 상처를 입게되고 의견의 충돌도 생기게 된다. 초청자가 생각할때 그의 가족을 위해 좀더 팔하기 를 원하지만 자기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껴질때 슬 퍼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있는 한계안에서 가족을 돌보고 도리어 그들을 이 해하고 격려해야 하겠다. 초청을 받은 가족이 생각할때 미국이라고 와보니 예기치 않은 일은 아니지만 살기가 어렵고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온 초청자 역시 고생하고 있는것을 알게될때 미안 스텝고 괴로운 것이다.

장미동산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가? 장미동산은 미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비록 현실이 가시떨볼 같다고 느껴지더라도 그속에서 손이 손을 닦잡고 장미동산을 개척할때 가까이 장미동산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것을 이해하고 참고 견디면서 노력하면 멀지 않아 남들처럼 생활의 토대가 서게될 것이다. 그때에 옛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서도 잘 견디었다는 것을 서로간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피차에 전이 알지 못하면 가족간의 깊은 정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며 또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스럽고 더견 스텝게 생각될 것이다.

장미동산은 누가 약속한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것도 아니며 오직 각자의 마음속에서 가꾸어질수 있는것이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어여쁜 장미가 피어나고 각 가정안에서 아름다운 장미동산이 이루어질때 나아가서 우리한인사회는 각곳에서 발하는 마약, 빨간색, 그리고 구름의 장미의 그득한 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 아름다운 장미동산이 될 것이다.

직업안내

- 1) 씨익 국제 공항 안내원 - 영어, 일어에 능숙한 한국여자. 공항내의 이면차, Gift Shop을 안내하는일.

연락처: Soonja - Stone
TEL: 433 - 5610

- 2) 정원사 - Full time, Part time 씨아들 근처에서 일함.

연락처: George Suetsugu
TEL: 325 - 6180
329 - 5992

편집후기

4월, 5월 이는 다른때보라 다채로운 행사가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4월의 한인사회를 꽃피게 했던 「한국의밤」을 비롯하여 교회대항 배구전을 들수가있다.

또 이달 말 (5월 31일) 이는 한국인이 아끼고 사랑해 마지않는 가수 레디길 이 한인교포들 이끼 노래를 선사할 것이므로 한인사회는 물론 한국에 머 무는 동안 퍼티길의 편이었던 많은 미군인들도 고향 가오는것을 더환영하고 가슴부풀어있다.

또 타코마 부인회에서도 아시안 퀘시터벌, 부인회 피크닉 등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7월에는 연례 행사인 타코마 더 씨아들 친선대회도 있게 되고 보니 앞으로는 더더욱 밝아 질것 같다.

그동안 한인회보의 편집을 위해 오랫동안 열 성적인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종서씨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심을 섭섭하게 생각한다.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가지 원고 들 환영하고 있으니 수시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곳 : Editor of Korean News
6221 Sycamore Ave. N.W.
Seattle Wash. 98103

The Tea Leaf RESTAURANT
비원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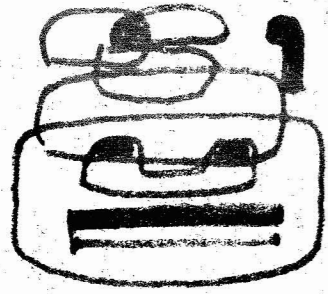
고국에서 온. 풍화요리가. 고향의 주미에 맞게 요리합니다.
풍화요리 전가복. 양수육. 팔보채. 回式八 餠상. 回출차 한상.

영업시간 11:00 ~ 9:00 PM
11:00 ~ 10:00 PM Fri & Sat

TEL 531-5232 전화 예약을 항상 접수함.

528 S. Garfield. St. TACOMA. (NEXT TO P.L.U.)

대표 이 평 선



사랑의 謠歌 II

그대 꿈꾸는 동안

金 汝 貞
金 汝 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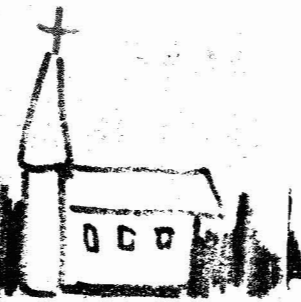
그대 꿈꾸는 동안
밤새 비 내리고 (I)
꿈 깨고 나면 (II)
빛나는 아침

꿈길로만 오는
달 빛같은 그대
청청백일 대낮보다야
긴 밤을 기다리며 살아온 날

한 번쯤
잡 말 한 번쯤
새벽 첫 두레박 속 샘물 같은
淨한 그대 앞에 앉아 보폭은 마음

봄 버들에 매프러이 물 내리듯
칠칠한 검은 머리채 풀어 앉아
깊은 하늘 흔들어 보고 싶은 마음

그대 꿈꾸는 동안
밤새 개구리 울고
꿈 깨고 나면
나팔꽃 등턱에 밝은 아침



한인 소유의 첫 교회당 한인 장로교회에서 건물 매입

씨애틀-타코마 지역에 한인교회가 여섯군데나 되지만 모두가 미국인 교회의 건물일부를 주일마다 몇 시간씩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창립 일주년을 갖 치른 바 있는 씨애틀 한인 장로교회(전 씨-택 한인교회)에서는 씨애틀 남쪽에 있는 3층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 지난 3월 22일에 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한인이 소유한 교회당이 서게 되었다.

주소를 12412 Des Moines Way South, Seattle 에 둔 이 교회 건물에는 본당이 3층에 있고 2층에는 교회 사무실, 회의실, 유아실, 여러개의 교실과 주방이 있으며 아래층에는 주일학교 아동을 위한 교실과 오락시설이 있고 건물 옆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가지로 사용도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다.

교회 이전은 5월 중순 예정이며, 입당 봉헌식을 지난 4월 6일에 평신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 받은 바 있는 김 동협 목사의 취임식과 겹쳐서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교회 시설은 각종 회의나 피로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포에게도 실비로 빌려줄 것이라고 하는데 문의는 교회 사무소 전화 783-8370로 연락하면 된다고 한다.

◎ 김 동협 목사

아담한 목사관을 새로 마련코 이사했음.
새 주소는 515 North 102nd St.
Seattle, Wa. 98133
전화: 783-8370

U.W. 한국 학생회 야유회 - 우드랜드 파크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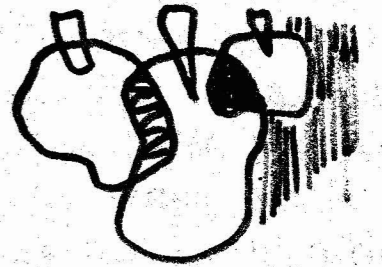
학생회에서는 5월 17일 토요일 우드랜드 파크에서 학생 및 그 가족상호간, 또한 한국학생과 미국학생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는 야유회를 가졌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의 푸르른 녹음 아래서, 학문과 시를 하느라 피곤해 있던 눈, 꼬부렸던 허리를 잠시나마 쉬게 하며 맑은 하늘 높이 야구 뺏어도 휘둘러본 즐거운 하루였다. 특히 푸른 풀밭에서 뜬는 갈비의 진리는 독특한 것이었다. 학생회장 김철권씨, 또 미세스 김의 수고가 컸음을 밝혀둔다.

성균관대 동창회

12월 31일에 발기를 본 성균관 대학교 동문회에서는 창립총회는 오는 5월 10일에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소와 시간에 관해서는 이규룡,

구 법회, 안 병용씨에게로 연락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구성과 "미주성대"발간에 관해 의논할 것이라고 하며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길 발기인들은 바라고 있다.



골프대회 소식

6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Southern Vally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하는데 골프 애호가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NORTHWEST ORIENT



국내외 항공료 영가제공
정기 영가 모국 방문
이민 항공료 및 집 알선

김익이행사

603 STEWART STREET ROOM 606 LLOYD BUILDING
Phone: (206) 624-2227 (206) 624-2228

대표: 김 창 성 RES. 776-7115

결혼

○ 백안의 신부 맞은 홍 윤선군.
신랑 신부 한복차림으로 인사.

Bremerton 에서 사업을 하는 교포 홍사영씨의 3남 윤선군이 백안의 신부 「바바라」 양과 지난 4월 5일 결혼식을 올렸는데 식후에 신랑 신부가 한복차림으로 피로연에 나타나 인사를 하자 피로연 장소인 Bremerton Yacht Club 에 참석했던 수많은 축하객들은 박수로써 대 환영을 하였다. 치마 지고리에 버선까지 격을 맞춘 신부와, "워터폴" 을 연발하면서 춤을 추던 축하객들은 잡채와 김치, 새우튀김등 우리 음식에도 "워터폴" 하고 탄성을 지르면서 하루 저녁을 즐겁게 보냈다.

○ 장지원씨 송덕순양 맞아

장지원씨도 같은 날 4월 5일 오후 동부에서 모셔온 신부 송덕순양을 맞아 씨애틀 한인 장로 교회 새건물에서 김동협 목사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특히, 동교회 부인회에서 훌륭한 피로연을 마련하여 100여명의 축하객을 대접하고도 음식이 남을 정도였다고. 새 살림은 타코마에 마련.

○ 이 병익씨와 장순도양 결혼.

돌아오는 4월 26일 오후 2시 씨애틀 한인회에 이 병익씨와 장순도 양이 최용걸목사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5월 23일 현재

38.	신	순이	5\$	
39.	Hai	Sik	Smith	10\$
40.	전	공상	5\$	
41.	전	일영	5\$	
42.	정	명근	10\$	
43.	오	금주	3\$	
44.	오	영래	10\$	
45.	엄	남포	10\$	
46.	엄	도승	10\$	
47.	허	정순	5\$	
48.	Young	Ung	Choo	5\$
49.	오	홍걸	10\$	
50.	박	치란	3\$	
51.	박	대송	5\$	
52.	최	창각	5\$	
53.	Sandra	Kim	5\$	
54.	이	종완	5\$	
55.	이	규조	10\$	
56.	Choon	Yul	Lee	5\$
			계:	126\$
			누계:	422\$



아리랑 바



아리랑 전속 밴드는 매주 토요일까지 저녁시간 (8:30 - 1:45) 흥겨운 음악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623-9740
Res. 329 - 1896